

제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6.14. 정부세종청사

제41회 현안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계역사상 최장, 최강의 적대관계를 70년이나 유지해온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서로 약속한 세기적 회담이 됐습니다.

1989년 몰타회담, 1991년 소련방 해체 이후에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을 걷어내고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민족 앞에 전개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더욱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하루 뒤인 어제는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율과 선거 결과가 모두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저류와 국민의 열망 또는 분노를 반영합니다. 그것을 잘 읽고 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해온 일 가운데 국민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일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미흡하게 여기시는 것은 충실히 보완해 시행해야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개혁은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적폐청산은 이제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갑질을 근절하는 등 생활 속의 적폐를 없애는 쪽으로 비중을 옮겨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경제, 특히 청년 취업난과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당사자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보완해 시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질서는 확립해 가되 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고 북돋우는 일도 더욱 현실에 맞게 추진하십시오.

정부가 하는 일과 그 결과를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

도록 모든 부처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국민 설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향후 국정운영방향과 자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